

# 청일전쟁과 갑오개혁

담당교수 : 배민재

# 청일전쟁의 배경

- 19세기 후반 청-일본 간 이슈 : 류큐(琉球), 타이완, 조선
- 1871년 청일수호조규 & 통상장정 조인
-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공
- 1875년 5월 류큐에 일본군 주둔
- 청, 조선-각국 간의 조약 체결 주선 → 일본 견제
- 임오군란을 계기로 조선 내정간섭, 청군 주둔
- 일본 - 제물포조약을 근거로 조선 수도에 병력 주둔 권한 획득
- 갑신정변 이후, 청일 양국은 조선에서 변란 등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파병이 가능하다는 합의에 도달

# 청일전쟁

직접적인 계기 - 동학농민군 봉기, 청국에 파병 요청

- 일본 정부 - 조선에 출병, 對淸전쟁을 도발하고자
- 농민군 진압 후, 청일 양국군 공동 철수 논의
- 일본, 철병 대신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제안
- 청의 거절로 일본이 단독으로 내정개혁안 강행, 경복궁 침공, 조선 주둔 청군 공격, 친일정권 수립
- 청일전쟁 발발

# 시모노세키 조약

- 첫째,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한다.  
따라서 이 독립자주를 손상시키는 조선국의 청국에 대한 貢獻·  
典禮 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.
- 둘째, 청국은 요동반도·臺灣·澎湖열도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.
- 셋째, 청국은 戰費배상금으로 庫平銀 2억 냥(약 3억 엔)을 지불한다.
- 넷째, 청국은 일본에게 구미 열강이 청국에서 향유하는 것과 동등한 통상상의 특권을 부여함을 승인한다.  
→ 조선에 대한 우월한 정치·군사·경제적 지배권 장악
- 삼국간섭으로 좌절, 대만을 식민지로 확보

# 갑오개혁 기간

- 제1차 개혁기간(1894년 7월 27일~12월 17일)
  - 군국기무처의 핵심인물 김홍집·유길준 등 주도
- 제2차 개혁기간(1894년 12월 17일~1895년 7월 6일)
  - 김홍집&박영효 내각
  - 조선의 실질적 보호국화
  - 일본인 고문관, 차관정치
- 제3차 개혁기간(1895년 7월 7일~1896년 2월 11일)
  - 친일내각, 단발령 공포
-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중단

# 갑오개혁의 내용

- 청국의 종주국으로서의 특권 폐지
- 전통적인 절대군주제적 통치제도를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로
- 재정의 효율적인 확충·관리, 근대적인 상공업 육성하고자
- 근대적 常備軍과 警察제도를 확립하고자
- 근대식 학교제도 수립
- 전통적 신분제 질서 혁파
- 사법권의 독립, 재판제도 수립